

## SERMON 2 JULY 2107

우리는 지난 일요일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맞서는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보면, 불화를 야기하시고, 평화가 아닌 검을 가져오시겠다고 하시며,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심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보살핌 없이는 참새조차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난주의 강렬함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상상의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인터넷 접속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을 남겨두시고, 어떤 이메일도 보내거나 받을 수 없으며, 호주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오토바이를 타신 우편배달부도 없을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중 이 끊임 없는 소속관계는 우리가 자랄 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요일에 카페에 앉아서, 저의 모발폰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등록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핑크색 슬립을 받으러 갔을 때, 차고 인터넷 연결이 끊겨서 저는 서류 양식을 작성하는 법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Scottish/English 국경 분쟁에 대해 카운터 뒤에

있는 사람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자 이것이 그냥 컴퓨터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았나요?!

우리의 상상의 여정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결국 소박하지만 편안한 집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 가고 있고, 밖에서 일할하느라 바빴던 하루 일과는 조용해 지고 있습니다. 집은 음식 냄새로 가득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마음껏 즐길 준비가 되어 있고 음식에 대한 축복을 빕니다. 막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을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낯선 사람, 그는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은 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를 환영하고, 그는 식사에 참여하고, 저녁 식사에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그는 여러분에게 이틀 정도 여행을 떠나는 기독교인들로 부터 인사와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몇달 전에, 처음으로, 그들을 만났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독교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알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고 여러분이 들은 것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 뜻밖의

메신저의 도착과 함께,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나눴을 때, 더 깊이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멋진 교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실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화기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안심시켜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여행의 요점은 마태 복음을 현대언어로 발췌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 환대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싸고 있는 말이며, 마태가 어려운 시기에 그의 지역 사회에 이를 전파하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움직임과 그것을 모두 담고 있는 환영을 둘 다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읽고 쓸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은 분명히 보내졌고, 우리가 바울서신과 그 밖의 다른 서신서들에서 알수 있듯이, 이 메시지들은 모두 손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나서 크게 소리 내어 읽어졌습니다. 발송인은 그의 메시지를

특사에게 위임했습니다. “특사”는 'evangelon'와 '복음 전도자'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로, “천사”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 천사들은 사신들이고, 하나님의 특사들입니다. 마태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셉과 동방박사들에게 전달하는 천사의 이야기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마태 복음에서, 제자들이 보내진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의 생각들은 명백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에 의해 강하게 변화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보게하기 위해 그들을 불렀는지에 대해 말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길 기다렸고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총체적인 희망을 주길 바라는지를 보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간직한 메시지에 대해 궁금해 할 때, 우리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산상 수훈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들의 본질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빛과 소금을

회상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용서, 평화 그리고 사랑의 단순한 메시지를 인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소유한 복음입니다, 복음, 영원한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예수님을 바라 보도록 부르고, 그의 빛안에 거하도록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는지를, 그리고 보았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억압 받는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자들에 대한 염려들은 복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그들이 들은 것이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부했을 것입니다. 어떤 응답들에는 항상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 사도들과 그들의 뒤를 밟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예수께로 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이 사람들은 환영 받았고,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환영의 환대는 시대의 문화에 깊은 감명을 오랜 세대 동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단지 식사나 차를 제공하는 것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혹독한 기후에서의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물 한잔이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어 성경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사라에 의해서 준비된 음식과 술을 그의 텐트에 나타난 세명의 이름이 낯선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늙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신으로 밝혀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이들에게 물 한잔을 주는 환대 이상에 관한 것 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 장에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돌보는지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꾸짖을 때 가리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배 고프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난한자들과 포로된자들을 방문할때, 목 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잔을 마시게 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 할때 그들은 한쪽으로 기울게 될것입니다. 복음은 제대로 나누어 지지 않았습니니다.

환대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전이 없다면, 삶은 부패하고, 사고가 확립되고 틈새들에 다리가 놓여지는 대신에 장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환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환영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왕국 임무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으로 알려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낸 이의 사이의 역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환영의 제공이 있고, 동등하게 인정된 환영, 그리고 공유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는 이 와 받는 이 가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삶에 존재 했습니다.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듣는 것 처럼 단지 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예언자들이나, 혹은 정의로운 사람 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환대를 만드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문을 열고 방문객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임무들을 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발이 아닙니다. 몇몇은 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몸의 일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환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흐르는 놀라운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환영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많은 다른 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시는지 다시 한번 듣는 것은 겸손한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항상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입니다.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단어는 17세기 영국 시인인 조지 허버트 신부가 적은 시입니다.

사랑은 내게 환영을 받았으나, 내 영혼은 죄의 먼지와 죄를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짝사랑은, 나의 첫 입장에서 부터 느슨해 지는 나를 관찰 하며,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 달콤하게 질문합니다.

손님인 내가 대답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환송합니다:

사랑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가 됩니다.

불친절하고 은혜를 모르는 제가요? 오 그대여, 그대를 볼 수가 없군요.

사랑은 저의 손을 잡았고,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눈을 만들었나 사랑인 내가 아니면?



진정한 주여, 그러나 저는 그들을 망쳐 놓았습니다, 나의 수치심이여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라.

사랑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가?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앉으십시오, 사랑이 말합니다, 그리고 내 고기를 맛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앉아서 고기를 맛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복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식탁에서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안에서 간직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님과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고 우리를 그의 동행의 일원으로 만드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